<개혁 '98 : **화학경영을 혁신하자! …>**

"중국, 중국경제를 배우자!"

LG화학이 중국 Dagu Chemical과 합작으로 건설한 중국 Tianjin 소재 PVC 10만톤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5월18~20일 Beijing 및 Tianjin을 방문했다.

IMF사태라는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맞아 한가로이 해외여행을 한다는 것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했지만, LG화학이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화한다는 장기계획아래 추진하고 있는 합작공장의 준공을 축하해줄 겸 화학경제연구원(CRI) 차원의 중국협력문제도 마무리할 겸 중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중국방문 중 필자는 Beijing 및 Tianjin에서 이제까지 한국에서는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한국적 사고방식에서는 기기묘묘했던 사건(?)들을 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건(?) 현장에서 한국에서는, 한국적 사고방식에서는 도저히 접할 수 없는 일들을 보았기에 배우고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소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첫번째, Beijing에 있는 중국 化工新息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한·중 양국 화학산업의 정보교류 및 출판·광고·전시회·컨설팅 등 광범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化工新息 책임자는 5회에 걸쳐 필자에게 중국차를 직접 대접해주었다.

한국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건실하게 생활한다고 자신하는 필자도 손님들에게 직접 차를 대접해본 사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중국측 관계자의 환대는 마음깊이 무엇인가를 생각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化工新息은 경제위원회 화학공업국(전 화학공업부) 소속으로 중국 화학산업의 통계자료를 집계하고 전문지 7~8종을 발간하고 있는 중앙부서 직속의 준행정관서이며, 중국 화학산업계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기관이다. 한국에서 정부부서 또는 산하기관의 책임자가 거드름을 피우기는커녕 아무런 불만없이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고 협력을 논의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두번째, Tianjin의 PVC 공장 준공식을 끝내고 축하 리셉션을 갖는 자리였다. 300여명이 모인 자리였으니 흥을 돋우는 절차는 빠뜨릴 수 없었을 것이다. 헌데 중국측에서 은행장으로 소개된 귀빈이 나와 한국노래를 유창하게 부르지 않는가. 한국측에서도 LG상사 이사가 답례로 중국노래를 열창했고, 필자는 리셉션장이라는 장중한 분위기도 무시한 채 실례를 무릅쓰고 LG상사 이사분에게 중국에서의 노고를 치하하고 고마움의 표시로 한잔을 권했다.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Tianjin시 부시장과 은행장 대표가 차례로 주석을 돌며 합작회사의 성공과 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해 건배를 제의한 것이었다. 한국의 관료나 금융계 인사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을 목격한 것이다. 뒤를 이어 LG화학 구본무 회장과 성재갑 부회장도 주석을 돌며 합작을 도와준 인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중국정부나 지방정부의 고위관료 및 은행장을 비롯한 금융 관계자들이 직접 식사를 대접하고 주연을 베푼다는 것은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인사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이다. 또 최근에 일어난 별난 사건도 아니다. 필자가 95년 「한·중 화학산업 협력협의회」를 결성코자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중국 화학공업부 부부장(차관)과 국장이 직접 주연을 베풀어 감사를 표한 바 있을 정도이다. 중국의 관료나 금융계 인사들이 외국손님을 깍듯이 접대하고 호의를 베푸는 까닭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중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한국관료나 금융권 관계자들은 어떠한가? Dow Corning이 실리콘 투자지역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과 말레이지아를 놓고 고심할 때 우리는 Dow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내비쳤던가 다시한번 생각게 하는 구석이다. 한국관료들의 비협조와 무사안일, 권위주의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다며 한국투자를 포기하지 않았던가 말이다.

미국 경제전략연구소(ESI)가 5월5~6일 워싱턴에서 개최한 「Globalism의 장래」 토론회에서 루디거 돈 부시 MIT대학교 교수가 한국관료들을 향해 던졌다는 따끔한 지적이 생각난다.

『한국이 경제개혁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관료들을 국외로 추방해야 한다.』

<화학저널 1998/6/1>